

소셜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조어 ‘개-’의 원형 연구*

오효정** · 김종혁***

(전북대학교)

Oh, Hyo-Jung & Kim, Chonghyuck. (2021). Probing the origin of the Korean adverbial *kay-* using data from Twitter.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9(3), 21-40. Traditionally, the word *kay* ‘dog’ had been used as a prefix in Korean boosting the negative sense of the noun that it attaches to, as in *kay-kosayng* ‘worthless extreme hardship’. Around 2010, however, a morpheme, which looks exactly the same as prefix *kay-*, began to be used among younger generations as an adverbial expression, freely combining with various sorts of categories which have gradable meanings. This new adverbial *kay* has thereafter been viewed as an evolved variant of prefix *kay-* in the Korean literature. Recently, however, Im (2015) rejects this standard view about the origin of adverbial *kay*, and argues that it has nothing to do with prefix *kay-* as it derives from *khap* ‘cap(tain)’ through the intermediate form *khay*. In this article, we probe the origin of adverbial *kay* using the data we collected from Twitter. Usage patterns that emerge from our analysis of the data containing *khap* and *khay* strongly indicate, contra Im (2015), (i) that *khap* cannot be the origin of adverbial *kay* and that *khay* can neither be its predecessor. Rather, the usage patterns match up to the expectations held by the standard view that adverbial *kay* originates from prefix *kay*.

주제어(Key Words): 두어 ‘개’(prefix *kay*), 신조어 ‘개’(adverbial *kay*), 캡(cap(tain)), 캐(khay), 트위터 (Twitter)

* “이 논문은 2021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교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또한, 이 논문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을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제 1저자

*** 교신저자

1. 머리말

접두어 ‘개’는 사용방식과 출현시기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1) a. 접두어 ‘개’ : 개고생, 개쓰레기, 개지랄, 개새끼
- b. 신조어 ‘개’ : 개웃기다, 개좋다, 개싫다, 개빠르다

(1a)에서 ‘개’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명사인 ‘고생’과 결합하여 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명사인 ‘개고생’을 만든다. 이러한 사용방식은 저자와 같은 기성세대 화자들 사이에 널리 쓰이는 전통적인 사용방식이다. (1b)의 ‘개’는 사뭇 다르다. ‘개웃기다’에서 볼 수 있듯이 통사적으로 명사에만 국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가 의미적으로도 부정적인 의미를 더하기 보다는 마치 강조 부사처럼 사용되기 때문이다. 임현열(2015)의 문헌조사와 오효정·김종혁(2021)이 정리한 트위터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확장된 ‘개’의 사용은 2010년경부터 신세대 화자들 사이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신조어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를 (1)과 같이 접두어 ‘개’와 신조어 ‘개’로 편의상 구분하여 칭하기로 한다.

신조어 ‘개’의 원형에 대한 학계의 견해는 (2)와 같이 두 가지로 나뉜다.

- (2) a. 접두어확장설 : 접두어 ‘개’ → 신조어 ‘개’
- b. 음운변이설 : ‘갹’ → ‘개’ → 신조어 ‘개’

대부분의 학자들은 접두어 ‘개’가 통사·의미적 확장을 거쳐 신조어 ‘개’로 사용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김정선 외(2011), 전은진 외(2011), 김태경 외(2012), 김정선 외(2013), 오효정 & 김종혁(2021)과 같은 학자들은 신조어 ‘개’의 사용실태와 변이양상을 접두어 ‘개’와 비교하여 상세히 기록하려 노력했으며, 강희숙(2012), 장부리(2012), 노명희(2013), 손평호(2014), 홍달호(2014), 장경현(2019)과 같은 학자들은 접두어 ‘개’가 겪은 파격적인 통사·의미 변화를 언어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최근 논문에서 임현열(2015)은 신조어 ‘개’의 원형에 대한 기존 학자들의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새롭고 흥미로운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신조어 ‘개’는 접두어 ‘개’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니라 1980년대 중·후반 젊은층에서 사용되던 강조어 ‘갹’이 음운변이를 거쳐 ‘개’에서 신조어 ‘개’로 되었다는 주장이다.

본 연구는 위에서 살펴 본 ‘접두어확장설’과 ‘음운변이설’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신조어 ‘개’의 원형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별다른 의심이나 특별한 논의 없이 신조어 ‘개’를 접두어 ‘개’의 확장형으로 간주하는 것은 둘의 형태가 같다는 점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음운변이설이 학계에 제기된 만큼 신조어 ‘개’의 원형에 대한 체계

적인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임현열(2015)의 음운변이설이 제기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두 견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가장 큰 이유는 관련된 데이터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음운변이설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개’ 뿐만 아니라 ‘캠’과 ‘캐’가 사용된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어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현장방문조사 방식을 통해서도 이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현 시점이 아닌 과거 자료를 새롭게 구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적인 한계를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한다. 10년 동안 트위터에서 사용된 화자들의 대화 내용 중 관련 어휘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들을 크롤러(Crawler)로 수집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접두어확장설과 음운변이설의 정당성을 검증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자 한다.¹⁾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임현열(2015)이 접두어확장설을 부정하고 음운변이설을 주장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임현열의 주장을 반박하고 접두어확장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오효정·김종혁(2021)의 텍스트마이닝 기술을 활용하여 트위터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제시한다. 마지막 장은 전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마무리한다.

2. 음운변이설에 대한 고찰

2.1. 음운변이설

접두어확장설은 접두어 ‘개’가 파격적인 통사변화와 의미변화를 거쳐 신조어 ‘개’가 되었다고 전제하고 있다. 명사에만 국한되어 사용되던 접두어가 통사 변화를 거쳐 다양한 비명사 술어를 수식하게 되었고, 의미적으로도 부정적인 의미만을 더하던 것이 의미 확장을 거쳐 강조 부사의 기능을 갖게 되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임현열(2015)은 이러한 접두어확장설의 전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과거 신조어 출현 양상을 보았을 때 이처럼 급진적인 변화를 겪은 경우, 즉 두 가지 기능이 바뀌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접두어 ‘개’가 신조어 ‘개’로 진화했다는 전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너무’와 같이 피수식어에 부정적인 의미를 더하던 것이 강조 부사로 의미 확장을 거친 사례와 ‘핵’과 같이 통사적

1) 크롤러(Crawler)를 쉽게 설명하자면, Google과 같은 검색엔진을 예로 들 수 있다. Google의 검색창에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하면 검색어와 관련된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이처럼 검색어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분류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크롤러라 부른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크롤러는 트위터로부터 검색어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분류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써 본 논문의 1저자가 코딩한 것이다.

인 기능 확장만을 거친 사례는 찾아 볼 수 있지만, 통사·의미 두 가지 기능이 모두 변한 사례는 없다는 것을 근거로 접두어확장설을 부인하는 것이다.

음운변이설을 주장하는 근거로 임현열(2015)은 신조어 ‘개’와 이의 변형으로 알려진 ‘캐’의 유사성에 주목하고 있다. 몇몇 학자들이 언급한 것처럼 (강희숙, 2012; 손평호 2014; 장경현 2019) 신조어 ‘개’와 ‘캐’는 (3)에서처럼 통사·의미적으로 같은 환경에서 사용된다.

- (3) a. 개웃겨, 개좋아, 개싫어
b. 캐웃겨, 캐좋아, 캐싫어

이와 같은 유사성을 바탕으로 기존 학자들은 ‘캐’를 ‘개’로부터 파생된 변이형으로 분석하였으나, 임현열(2015)은 동일한 현상을 기존 학자들과 반대로 신조어 ‘개’가 ‘캐’로부터 파생되었다는 가능성을 열어 주는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역발상의 근거로 ‘캐’와 ‘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제시하고 있다.

임현열(2015)은 대학생과 중학생 각 200명을 대상으로 ‘캐’와 ‘개’의 사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두 그룹이 ‘개’와 관련해서 동일한 답변을 보였지만, ‘캐’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캐’를 듣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한 비율은 대학생이 중학생보다 월등히 높은 반면에, ‘캐’를 사용하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았다는 비율은 중학생이 대학생에 비해 훨씬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학생 그룹이 중학생 그룹에 비해 ‘캐’와의 접촉이 높다는 것이다. 바로 이 사실, 즉 대학생 그룹이 중학생 그룹에 비해 ‘캐’와 더 익숙하다는 사실이 ‘캐’로부터 신조어 ‘개’가 파생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임현열(2015)은 주장하고 있다. 대체 사용 가능한 두 개의 변이형(‘캐/개’)이 있을 때, 경쟁에서 살아남아 어린 세대에게 전달되는 것이 신형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익숙하지만 중학생들에게 낯선 ‘캐’가 구형이고 어린 세대들에게도 익숙한 ‘개’가 신형이라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그렇다면, 신조어 ‘개’의 전신인 ‘캐’는 무엇으로부터 파생되었을까? 이에 대해, 임현열(2015)은 1980년대 중·후반 젊은 화자들 사이에 자주 사용되던 ‘캡’이 ‘캐’의 원형이라고 제안한다. 영어 captain의 첫 음절에서 온 ‘캡’이 ‘캐’와 ‘개’의 원형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는 변화양상이 언어학적으로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임현열(2015)에 따르면, ‘캡’은 ‘캐’나 신조어 ‘개’와 마찬가지로 (4)에서처럼 강조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사·의미적 기능 변화를 겪은 어휘가 아니다. 신조어 ‘개’의 출현은 단지 음운변화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캡’이 중성탈락을 거쳐 ‘캐’가 되었고, ‘캐’가 음운약화현상을 거쳐 신조어 ‘개’가 되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 (4) a. 캡/캐/개 좋다!
b. 캡/캐/개 싫어!

(임현열 2015: (14) ①, ②, 131)

음운변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언어현상이다. 방언들 간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 중 하나가 소리라는 것만을 봐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임현열(2015)에게 신조어 ‘개’의 출현은 언어학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겨난, 예측 가능한 현상 중에 하나인 것이다. 이는 신조어 ‘개’의 출현이 급진적인 언어변화를 통해 생겨난 것이라고 전제하는 기존 학자들의 입장과 확연하게 차별되는 부분이다.

2.2. 음운변이설의 타당성 검토

기존 학자들이 당연시 여기던 접두어확장설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롭고 흥미로운 음운변이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임현열(2015)의 주장에 가치가 있다. 또한, 그의 주장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신조어 ‘개’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학계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그가 접두어확장설을 부인하고 음운변이설을 옹호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가 얼마나 타당한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신조어가 통사 기능과 의미 변화를 모두 겪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²⁾, 접두어확장설이 틀렸다는 논리는 타당한 것일까? 이는 신조어 ‘개’의 출현을 바라보는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이긴 하지만,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론은 결코 아니다. 과거 전례가 없었으니 미래에도 없을 것이라는 추론은 새로운 것의 출현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은가? 언어는 살아 있는 유기체이다. 언어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세대를 거치며 끊임없이 바뀌고 있고, 또 급격히 변하는 환경에 발맞춰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언어 또한 급격히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영어 어휘 ‘damn’을 예로 살펴보자. Online Etymology Dictionary에 따르면 ‘damn’은 라틴어의 명사인 ‘damnum (damage)’에서 파생되었다고 한다. 출발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명사에 불과했지만, 현대 영어에서 ‘damn’은 (5)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 | | |
|---------------------------|--------|
| (5) a. I gave him a damn. | (명사) |
| b. Damn it! | (동사) |
| c. This is damn good! | (강조부사) |

특히, (5c)에서 ‘damn’이 형용사인 ‘good’을 강조하는 정도 부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임현열의 추론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이다. ‘damn’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명사에서 통사·의미적인 변화를 모두 거쳐 정도 부사로 사용되는 예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우리말 ‘개’에 상응하는 영어 단어인 ‘dog’에서도 임현열(2015)의 접두어확장설에 대

2) 본 논문의 심사위원이 지적하였듯이 신조어가 통사 기능과 의미변화를 모두 겪은 전례가 없다는 주장은 “역사언어학적 연구들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한 논리가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영어에서 ‘dog’는 일반적으로 동물의 한 종류를 지칭하는 명사로 사용되지만 (6)에서처럼 강조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6) I am dog tired.

(6)에서 ‘dog’는 명사가 아닌 ‘tired’를 수식하는 강조 부사로 화자가 몹시 피곤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예이다. 만약, 임현열(2015)의 논리가 옳다면 (6)과 같은 문장은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의 추론에 오류가 있음을 의미한다.

영어에서 ‘dog’가 강조 부사로 사용되는 (6)은 예외적인 경우이다. 그렇다면,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6)을 무시하고 넘길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예외적인 경우일지라도, (6)이 제시하는 바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임현열(2015)의 논리에 따르면, 예외적이든 그렇지 않든 (6)과 같은 문장은 아예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잘못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생물의 진화는 돌연변이를 통해 진행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환경에 잘 적응한 돌연변이는 지배종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도 한다. 진화의 측면에서 볼 때, (6)의 ‘dog’와 신조어 ‘개’ 모두 돌연변이로 볼 수 있으며, 둘 간의 차이는 한국어의 ‘개’가 영어 보다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이 진화론에 입각한 신조어 ‘개’에 대한 견해는 지극히 추상적인 것이며 본 연구에서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돌연변이설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견해인 접두어확장설을 부인하는 임현열(2015)의 논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이제, ‘개’와 신조어 ‘개’의 관계에 대한 임현열(2015)의 주장이 타당한지 살펴보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는 신조어 ‘개’가 ‘개’로부터 파생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 대학생 그룹이 중학생 그룹에 비해 ‘개’에 대한 접촉이 높다는 설문조사를 제시하고 있다. ‘개’와 ‘개’ 두 변이형 중 어린 세대인 중학생들에게 살아남은 유형인 ‘개’가 신형이고 대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다 어린 세대에게 전해지지 않은 ‘개’가 구형이라는 것이 그의 논리다. 논리의 흐름을 좀 더 쉽게 나타내자면 (7)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 (7) a. 과거 (대학생, 구세대) : ‘개, 개’모두 사용³⁾
 &
 b. 현재 (중학생, 신세대) : ‘개’만 사용
 ↓
 c. 결론: 개 → 개

3) 심사위원께서 지적하였듯, 대학생과 중학생을 구세대와 신세대로 표현하는 것은 이들의 나이 차이가 적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심사위원의 생각에 동의하나 더 나은 표현을 찾기가 쉽지 않고 명확한 논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두 표현을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과거 구세대인 대학생들 사이에서 '개'와 '캐'가 동시에 사용되다 현재 신세대인 중학생들 사이에서 '개'만 살아남았으니 '개'가 '캐'로부터 파생되었다는 논리인데, 이 논리에는 상당한 비약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개'가 '캐'와 사용되다 '개'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단순히 '캐'가 더 이상 화자들 사이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캐'로부터 '개'가 파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실, 임현열(2015)이 보고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반대의 해석도 가능하다. 과거 구세대인 대학생들 사이에서 '개'의 파생형으로 '캐'가 반짝 유행하다 경쟁에서 '개'에 밀려 사라졌다는 견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이 견해가 가능한 견해라면, '캐'가 '개'의 파생형이라는 분석 또한 임현열의 설문조사 결과와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임현열의 설문조사 결과는 음운변이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부족하다고 판단내릴 수 있다.

3. 캡, 캐, 개

3.1. 접두어확장설과 음운변이설의 예측

앞 절에서 접두어확장설을 부인하고 음운변이설을 옹호하는데 사용된 근거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살펴보고 그에 타당성이 부족함을 논의하였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할 점은 위의 논의가 접두어확장설이 옳거나 음운변이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 논의의 핵심은 접두어확장설을 부인하기 위해 사용된 근거에 타당성이 없으므로 접두어확장설의 그림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접두어확장설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위 논의는 음운변이설을 옹호하기 위해 인용된 근거에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일뿐 음운변이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접두어확장설의 옳고 그름이나 음운변이설의 옳고 그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제시되었던 근거와 달리 타당성이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 논의의 핵심인 것이다.

사실, 접두어확장설과 음운변이설은 상당히 구체적인 예측(prediction)을 하고 있으며, 그 예측들이 맞는지를 검증함으로써 두 가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먼저, '캡'과 관련된 음운변이설의 예측을 살펴보자. 음운변이설은 '캐'와 신조어 '개'가 '캡'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캡'이 사용되는 환경에서 '캐'와 신조어 '개' 모두 사용될 수 있어야한다는 예측을 한다. 예를 들어, '캡좋아'가 가능하면 '캐좋아'나 '개좋아'가 모두 가능해야한다는 예측을 하는 것이다. 반면에, 접두어확장설은 '캡'과 관련해서 아무런 예측을 하지 않는다. 이 가설에서는 신조어 '개'의 출현이 '캡'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개'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음운변이설 뿐만 아니라 접두어확장설도 구체적인 예측을 하고 있다. 음운변이설의 경우, '캐'는 '캡'으로부터 파생되어 신조어 '개'로 발전했기 때문에 접두어 '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개체이다. 따라서, '캐'가 접두어 '개'가 사용되는 환경에

나타날 수 없다는 예측을 한다. 예를 들어, ‘캐고생’과 ‘캐새끼’와 같이 접두어 ‘개’의 자리에 ‘캐’가 나타나는 예문은 있을 수 없다는 예측을 하는 것이다. 접두어확장설은 이와 관련하여 음운변이설과 정반대 예측을 한다. 접두어확장설의 경우, 신조어 ‘개’ 뿐만 아니라 ‘캐’ 또한 접두어 ‘개’의 변이형이기 때문에 접두어 ‘개’가 사용되는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예측을 한다. ‘캐고생’과 ‘캐쓰레기’ 같은 예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하는 것이다.

음운변이설과 접두어확장설은 ‘캐’와 신조어 ‘개’의 사용빈도수와 관련해서도 서로 다른 예측을 한다. 음운변이설을 주장한 임현열(2015)은 문헌조사를 통해 신조어 ‘개’가 2010년 이후에 출현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신조어가 막 출현한 당시에는 일부 화자들 사이에서만 사용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기존 어휘인 ‘캐’가 신조어 ‘개’보다 월등히 많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쟁에서 살아남은 신조어 ‘개’가 점진적으로 증가했을 것이고 경쟁에서 밀려난 ‘캐’는 점진적으로 사용빈도수가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접두어확장설에서는 음운변이설과 달리 ‘캐’와 신조어 ‘개’의 사용빈도 추이에 역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 보다는 ‘캐’가 ‘개’보다 적게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한다. 접두어확장설은 ‘캐’를 일부 화자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개’의 변이형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화자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개’보다 자주 사용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음운변이설과 접두어확장설을 검증하기 위해 위에서 논의한 두 가설의 예측을 정리하면 (8)과 같다.

(8) a. ‘캡’과 관련된 두 가설의 예측

음운변이설: ‘캡’이 나타나는 환경에 ‘캐, 개’ 사용가능

접두어확장설: 관련된 예측 없음

b. ‘캐’ 변이형에 대한 두 가설의 예측

음운변이설: ‘캐고생, 캐새끼’ 사용 불가능

접두어확장설: ‘캐고생, 캐새끼’ 사용 가능

c. 어휘패턴 및 빈도에 관한 두 가설의 예측

음운변이설: ‘캐’ ‘개’ 빈도수 역 상관관계로 발전

접두어확장설: ‘개’가 ‘캐’보다 많이 사용

3.2. 소셜 빅데이터를 통한 검증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젊은 세대들은 소셜미디어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 이하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상대방과 구어체로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정상준 외, 2019; Oh et al., 2020). SNS 사용자들에 의해 매일 매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되는 대화 자료는 언어사용과 변화를 탐구하는 연구자들에게 가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 실제로 오효정·김종혁(2021)에서 그 효용성이 입증되었다. 오효정·김종혁(2021)은

트위터에서 매해 5월 20일과 21일 48시간 동안 10년(2009-2018)에 걸쳐 사용된 접두어/신조어 ‘개’를 추출하고 분석하여 10년 동안 ‘개’의 사용이 어떻게 증가하였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인 자료수집 방법인 현장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기에는 극히 어려운 장기간 언어사용자료를 대용량 SNS 말뭉치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캡’과 ‘개’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개’의 사용 실태와 비교하여 접두어확장설과 음운변이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효정·김종혁(2021)과 동일한 자료수집 방법을 활용하여 ‘캡’과 ‘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트위터에서 필요한 자료를 긁어오기 위한 수집기(Crawler)를 자체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캡’과 ‘개’가 포함된 트윗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캡모자’나 ‘부개’와 같이 본 연구와 관련이 없는 자료는 수작업을 통해 일일이 걸러 내었고, 관련 있는 자료만을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트위터에 누적된 모든 자료를 분류하기에는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에 걸쳐 사용된 자료들 중, 5월 20일과 21일 48시간 동안 사용된 자료만을 추출하여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캡’과 ‘개’가 사용된 트윗수는 다음과 같다.

표 1. 연도별 ‘캡’과 ‘개’가 사용된 트윗수

연도	A(‘캡’이 사용된 트윗수)	B(‘개’가 사용된 트윗수)
2009	0	13
2010	16	244
2011	17	191
2012	16	175
2013	14	83
2014	13	54
2015	12	62
2016	64	61
2017	379	100
2018	188	59
합계	719	1042

칼럼 A에서 볼 수 있듯이, ‘캡’은 화자들 사이에서 더 이상 유행하지 않는 어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트위터 서비스가 시작된 해인지라 사용자 수가 적었던 2009년을 제외하더라도 ‘캡’의 빈도수는 2015년까지(48시간 동안) 20회 이내에 머무르고 있다. 2017년과 2018년도에 ‘캡’의 사용빈도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지만 이는 ‘캡’이 사용되는 어휘패턴이 과거에 비해 확장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동일한 어휘패턴이 갑자기 많은 화자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캡’이 사용된 어휘패턴수가 10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 연도별 ‘캡’의 어휘패턴수 및 빈도수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패턴수	0	10	10	10	7	6	5	28	13	8
빈도수	0	16	17	16	14	13	12	64	379	188

2017년을 중심으로 ‘캡’의 사용빈도가 증가한 이유는 ‘캡짱’이라는 어휘의 사용이 갑자기 증가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인 BTS가 2017년 5월 21일 빌보드 뮤직어워드 에 공식초청되어 톱소셜아티스트 부분에서 수상하였는데, 이를 응원하기 위해 아미들이 ‘캡짱’이라는 어휘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캡’의 가장 많은 빈도수인 379회 조차도 결코 많은 수는 아니다. 오효정·김종혁(2021)의 조사에 따르면, 접두어/신조어 ‘개’는 48시간 동안 5911회까지 사용되었다고 하니 ‘캡’의 사용이 소수의 사용자들 사이에서 일부 어휘에 국한되어 사용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0년 동안 ‘캡’이 사용된 전체 어휘패턴은 총 50개이며 전체 빈도수는 719회인데, 이 중 2회 이상 사용된 어휘패턴과 빈도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2회 이상 사용된 ‘캡’의 어휘패턴 및 사용 빈도

순위	유형	빈도수	순위	유형	빈도수
1	캡짱	559	10	캡예쁘다	5
2	캡이다	32	11	캡덥다	4
3	캡좋다	20	11	캡맛있다	4
4	캡!	11	11	캡오랜만	4
5	캡멋있/지다	11	14	캡아프다	3
6	캡귀엽다	8	15	울트라캡	2
6	캡잘(생기다)	8	15	캡재미있다	2
8	캡많이	6	15	캡존잘	2
8	캡좋아한다	6			

피수식어가 묘사하는 정도를 강조하기 위해 ‘캡’이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캡존잘’과 같은 축약형을 제외하면 1980년대 중·후반 저자들이 ‘캡’을 사용하던 방식과 현대국어에서의 사용방식이 다르지 않다. 한 가지 차이라면 과거 ‘캡’이 다양한 피수식어와 사용되었던 것에 비해 현대국어에서는 피수식어의 범위가 극도로 한정되어 ‘캡짱’과 같은

몇몇 어휘와 집중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캡’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지 두고 볼 일이지만, 현재 보이는 패턴으로 보아 특정한 문맥에서만 사용되는 고착된 형태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캡’의 사용패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실은 ‘캡’이 수식어인 강조부사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캡이다, 캡!, 울트라캡’에서와 같이 독립적인 명사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사실, BTS 아미들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많이 사용된 ‘캡짱’을 제외하면, ‘캡’이 수식어가 아닌 명사형 술어로 사용된 ‘캡이다’가 가장 많이 사용된 패턴으로 ‘캡’의 주된 사용패턴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사용방식 또한 과거와 다르지 않다.

‘캡’이 수식어인 강조부사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명사형 술어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음운변이설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음운변이설에서는 ‘개’와 신조어 ‘개’가 ‘캡’으로부터 파생되었기 때문에 ‘캡’이 나타나는 언어학적 환경에서 ‘캐, 개’가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예측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캡종다’와 ‘캡이다’가 가능하기 때문에 ‘캐/개종다’와 ‘캐/개이다’가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들이 조사한 ‘개’의 어휘패턴과 오호정·김종혁(2021)이 보고한 방대한 ‘개’의 어휘패턴을 검토한 결과, 음운변이설의 예측이 틀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캐, 개’가 정도 부사로 사용된 ‘캐/개종다’와 같은 경우는 많았지만, ‘캐, 개’가 명사형 술어로 사용된 ‘캐/개이다’와 같은 경우는 단 한 경우도 찾을 수 없었다. 실제, 본 연구자들은 ‘캐/개이다’를 비문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상당한 모든 원어민들도 이러한 판단에 동의하고 있다. 이처럼, ‘캐/개이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신조어 ‘개’의 원형이 ‘캡’이라는 음운변이설의 가설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한다.

임현열(2015)은 ‘캡, 캐, 개’가 강조부사로써 유사하게 사용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음운변이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의 시각을 받아들여 명사형 술어의 경우를 제외하고 강조부사의 경우만으로 시야를 좁혀 ‘캡’과 신조어 ‘개’를 비교해 보아도 음운변이설을 받아들이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캡’과 신조어 ‘개’ 모두 강조 부사로 사용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지만, ‘캡’과 ‘개’는 의미상 상당히 다른 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캡’은 영어 captain으로부터 파생된 어휘이기 때문에 청자에게 비속어가 가지는 부정적인 센스를 전달하지 않지만 신조어 ‘개’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어른들 사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을 정도로 비속어가 가지는 특유의 부정적인 센스를 가지고 있다. 신조어 ‘개’가 ‘캡’으로부터 파생되었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센스를 지니지 않았을 것이다.

접두어확장설의 시각에서 ‘캐/개이다’가 불가능한 이유와 신조어 ‘개’가 부정적인 센스를 가지는 이유는 명확하다. 신조어 ‘개’는 접두어 ‘개’가 가진 속성을 물려받아 발전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접두어 ‘개’가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고 비속어로 사용되는 것처럼 신조어 ‘개’ 또한 원형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여전히 비속어가 가지는 센스를 전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캡’에 대한 데이터를 기초로 음운변이설과 접두어확장설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제, ‘개’와 관련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신조어 ‘개’와의 관련성을 검토해 보자. 표 1에서 언

급한 것처럼, ‘캐’는 10년 동안 총 1042회 사용되어 ‘캠’의 719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연도별 ‘캐’의 어휘패턴수와 빈도수는 표 4와 같다.

표 4. 연도별 ‘캐’의 어휘패턴수 및 빈도수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패턴수	9	96	92	77	53	35	37	35	33	29
빈도수	13	244	191	175	83	54	62	61	100	59

10년 동안 ‘캐’가 사용된 전체 어휘패턴은 총 229개이며 전체 빈도수는 1042회인데, 이 중 5회 이상 사용된 어휘패턴(49개)과 빈도수(758)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5회 이상 사용된 ‘캐’의 어휘패턴 및 사용 빈도

순위	유형	빈도수	순위	유형	빈도수
1	캐부럽다	69	24	캐재미있다	9
2	캐공감(하다)	59	24	캐피곤하다	9
3	캐...캠짱	56	28	캐답다	8
4	캐간지(나다)	39	28	캐많다	8
5	캐좋다	33	28	캐비싸다	8
6	캐백수	32	28	캐편다	8
7	캐발리다	31	32	캐난감하다	7
8	캐감동	29	32	캐달달하다	7
8	캐귀엽다	29	32	캐맛있다	7
10	캐안습	27	32	캐바쁘다	7
11	캐당황(하다)	19	32	캐짜증	7
11	캐웃기다	19	37	캐구리다	6
13	캐발랄하다	18	37	캐궁금하다	6
13	캐예쁘다	18	37	캐멘봉	6
15	캐병신	15	37	캐미남	6
16	캐망했다	14	37	캐민망	6
17	캐사기	12	37	캐새끼	6
17	캐잘(생기다)	12	37	캐존잘	6
19	캐당당하다	11	44	캐막하다	5
19	캐무시	11	44	캐많다	5
21	캐멋지다	10	44	캐명곡	5

순위	유형	빈도수	순위	유형	빈도수
21	개우울하다	10	44	캐슬프다	5
21	캐즐리다	10	44	캐신기하다	5
24	개고생	9	44	캐짱	5
24	캐동안	9			

위 ‘개’의 어휘패턴은 학계에 보고된 ‘개’의 어휘패턴과 상당히 유사하다. 오효정·김종혁(2021)이 정리하여 보고한 표6(2018년 5월 20과 21일, 48시간 10회 이상 사용된 ‘개’의 어휘패턴 목록)과 비교하면 둘 간의 유사성을 쉽게 알 수 있다.

표 6. 고빈도 ‘개+X’ 목록 및 사용 빈도

순위	유형	빈도수	순위	유형	빈도수
1	개웃긴다	682	39	개지랄	29
2	개빡친다	395	40	개빠르다	27
3	개중(아한)다	395	40	개오랜만	27
4	개쩨다	255	40	개좃	27
5	개소리	219	43	개섹시(하다)	26
6	개잘	171	44	개고생	25
7	개예쁘다	155	44	개존잼	25
8	개많다	153	46	개터지다	23
9	개귀엽다	148	47	개존잘	22
10	개오지다	142	47	개충격(받다)	22
11	개짱	136	49	개에바	19
12	개싫(어하)다	92	50	개간지(나다)	18
12	개짜증(나다)	92	50	개노잼	18
14	개부럽다	78	50	개설레(다)	18
15	캐즐리다	75	50	개시끄럽다	18
16	개재미(있다)	71	54	개빨리	17
17	개무섭다	70	54	개사랑하다	17
18	개씨	54	54	개소름돋다	17
19	개출다	52	54	개신기하다	17
20	개못	51	58	개어렵다	16
21	개쓰레기	48	58	개열심(히)	16
22	개놀라다	44	58	개행복하다	16

순위	유형	빈도수	순위	유형	빈도수
22	개섭	44	61	개대박	15
24	개피곤(하다)	43	61	개발리다	15
25	개쳐	43	63	개귀찮다	13
26	개뜬금(없다)	42	64	개까리하다	13
27	개떨리다	40	64	개더럽다	13
28	개슬프다	39	66	개멋있다	12
29	개망하다	38	66	개억울(하다)	12
30	개크다	37	66	개존맛	12
31	개아프다	36	66	개헛하다	12
31	개오바(한다)	36	70	개맛있다	11
33	개어이(없다)	33	71	개감놀	10
33	개힘들다	33	71	개나쁘다	10
35	개꿀	32	71	개당황(하다)	10
36	개너무	31	71	개미쳤다	10
36	개박살(나다)	31	71	개일찍	10
38	개새끼	30			

통사적으로, ‘캐’와 ‘개’ 모두 명사뿐만 아니라 비명사 술어를 수식할 수 있으며, 의미적으로도 부정적인 의미를 더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강조부사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 예문들을 통해 쉽게 볼 수 있다. 사실, ‘캐’와 ‘개’의 어휘패턴 관계는 유사함을 넘어 부분집합관계에 있다. ‘캐’가 나타나는 모든 어휘패턴이 ‘개’가 나타나는 어휘패턴에 속하는 것이다. 표 5와 표 6의 비교를 통해 부분집합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이는 오효정·김중혁(2021)이 2018년 10회 이상 사용된 ‘개’의 어휘패턴 75개만을 보고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재 10년 동안 사용된 ‘개’의 자료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리하는 중인데, 그들의 현재까지 조사결과를 기초로 ‘개’는 10년간 약 1400여개의 어휘패턴에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본 연구에서 조사된 ‘캐’의 모든 어휘패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면부족과 연구의 독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들이 조사한 ‘개’의 어휘패턴을 여기에서 소개할 수 없지만, ‘캐’가 ‘개’의 어휘패턴 일부에서 사용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터넷 구글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캐’와 ‘개’의 어휘패턴이 유사함을 넘어 부분집합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둘이 원형과 파생관계에 있다는 기존 학자들의 주장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두 가설, 즉 신조어 ‘개’가 ‘캐’로부터 유래했다는 음운변이설과 ‘캐’가 ‘개’로부터 파생되었다는 접두어확장설 중 어느 가설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일까? (8b, c)에서 살펴 본 두 가설

의 예측을 검토함으로써 이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 (8b, c)를 되풀이하면 (9a, b)와 같다.

- (9) a. ‘개’ 변이형에 대한 두 가설의 예측
 음운변이설: ‘개고생, 캐새끼’ 사용 불가능
 접두어확장설: ‘개고생, 캐새끼’ 사용 가능
- b. 어휘패턴 및 빈도에 관한 두 가설의 예측
 음운변이설: ‘개’ ‘개’ 빈도수 역 상관관계로 발전
 접두어확장설: ‘개’가 ‘개’보다 많이 사용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가 나타나는 어휘패턴에 대한 두 가설의 예측은 극명히 갈린다. 음운변이설의 경우에는, ‘개’가 ‘캡’으로부터 파생되어 신조어 ‘개’로 발전되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개’는 접두어 ‘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어휘이다. 따라서, 접두어 ‘개’가 사용되는 어휘패턴에 ‘개’가 ‘개’를 대체하는 예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을 한다. 반면에, 접두어확장설의 경우에는 ‘개’와 신조어 ‘개’ 모두 접두어 ‘개’의 변이형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접두어 ‘개’가 나타나는 어휘패턴에 ‘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표 5에서 진하게 쓰여진 어휘들이 관련 어휘들인데, 이를 모아 보면 (10)과 같다.

(10) 캐백수, 캐병신, 캐사기, 캐무시, 캐고생, 캐새끼

‘캐백수, 캐병신, 캐사기, 캐무시, 캐고생, 캐새끼’와 같은 어휘패턴은 ‘개’가 명사와 결합하여 부정적인 의미를 더하는 접두어 ‘개’의 전형적인 예들이다. (10)에서와 같이 접두어 ‘개’가 ‘캐’로 대체되어 사용된다는 사실은 음운변이설에 대한 강한 반증인 동시에 접두어확장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개’와 ‘개’의 사용빈도수를 통해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신조어 ‘개’는 2010년에 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음운변이설의 경우에는, 원형인 ‘개’가 신조어 ‘개’보다 2010년에 월등히 많이 사용된다 점진적으로 둘의 사용빈도가 역전되었을 것이라고 <그림 1>과 같은 예측을 한다.

이와 달리, 접두어 확장설의 경우에는 둘의 빈도수가 역 상관관계에 있다는 예측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는 ‘개’로부터 파생되어 일부 화자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변이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2010년뿐만 아니라 모든 해에 걸쳐 ‘개’가 ‘개’보다 덜 사용될 것이라는 예측을 한다.

위의 두 예측 중 어느 예측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오효정·김종혁(2021)이 보고한 ‘개’의 연도별 빈도수(표 7)와 ‘캐’의 연도별 빈도수(표 4)를 비교해 보자. 비교의 편의를 위해 표 4를 표 8로 아래에 되풀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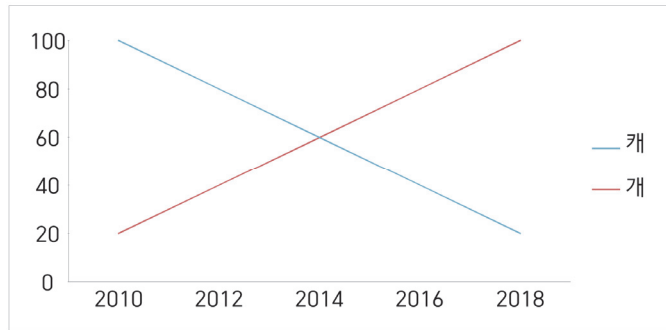


그림 1. '개'와 신조어 '개'의 빈도수 및 패턴수 추이에 대한 음운변이설 예측

표 7. 연도별 '개'의 빈도수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빈도수	53	684	1252	2876	2311	2222	4444	4270	5361	5911

표 8. 연도별 '개'의 빈도수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패턴수	9	96	92	77	53	35	37	35	33	29
빈도수	13	244	191	175	83	54	62	61	100	59

음운변이설의 기본적인 전제는 신조어 '개'가 '개'의 영역을 잠식해 가면서 성장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체의 빈도수나 패턴수가 역 상관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표 7과 표 8이 보이는 빈도수 패턴은 음운변이설의 예측에 부합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개'가 10년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개'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장기 추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둘의 빈도수 수치가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신조어 '개'가 '개'의 영역을 잠식하며 성장한 것이라는 해석은 불가능해 보인다. 오효정·김종혁(2021)이 제시한 '개'의 빈도수는 접두어 '개'와 신조어 '개'를 모두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에 표 7의 수치를 온전히 신조어 '개'의 수치로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들의 2018년도 자료와 전은진 외(2011)의 2010년도 자료를 통해 신조어 '개'의 비율이 전체 '개'에서 어느 정도인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오효정·김종혁(2021)은 2018년도 자료를 분석하면서 대다수의 '개'가 신조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전은진 외(2011:380-381)가 제시한 2010년도 자료목록에서 신조어 '개'의 어휘패턴이 접두어 '개'를 73:34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조어 '개'가 생겨난 2010년부터 모든 해에 걸쳐 신조어 '개'가 접두어 '개'보다 많이 사용되

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표 7에 제시된 '개'의 연도별 빈도수에서 매해 신조어 '개'가 적게는 과반 이상 많게는 2/3이상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신조어 '개'의 빈도수가 전체 '개'의 빈도수의 최소 절반을 차지한다고 표 9와 같이 가정할 수 있는 것이다.

표 9. 연도별 신조어 '개'의 추정 빈도수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빈도수	342	626	1438	1156	1111	2222	2135	2681	2956

이러한 가정 하에 '개'와 신조어 '개'의 변화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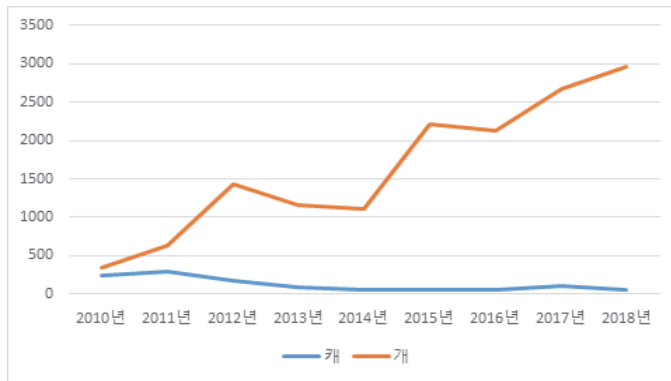


그림 2. '개'와 신조어 '개'의 변화 추이

<그림 2>는 신조어 '개'가 '개'의 영역을 잠식하며 성장한 어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신조어 '개'가 '개'의 영역을 잠식하며 성장했다면 역 성장관계를 보여 주는 <그림 1>과 같은 변화추이를 보였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신조어 '개'가 출현한 시기, 즉 '개'가 신조어 '개'보다 월등히 많이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시기인 2010년도조차 신조어 '개'가 더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둘 간의 간극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통시적 변화 추이를 음운변이설이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음운변이설과 달리, 접두어확장설의 입장에서는 신조어 '개'와 '개'의 성장추이에 자연스러운 해석을 부여할 수 있다. 2010년도 신조어 '개'와 '개'의 빈도수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는 접두어 '개'로부터 신조어 '개'가 파생된 첫해에 일부 화자들이 비속어인 '개'가 갖는 부정적인 센스를 약화시키기 위해 '개'를 '개'로 대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2010년 이후 두 어휘가 보이는 성장 추이는 둘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신조어

‘개’가 폭발적인 성장을 한 반면에 ‘캐’는 경쟁에서 뒤쳐져 사라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자연스러운 해석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음운변이설을 옹호하기 위해 임현열(2015)이 제시한 설문조사결과도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2015년 설문조사에서 대학생들이 중학생들에 비해 ‘개’와 더 익숙하다고 답변한 이유는 ‘개’가 2010년과 2011년 반씩 사용되다 ‘개’와의 경쟁에서 밀려 사라졌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다. 2010년경 ‘개’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잠시 사용됐다면, 당시 중학생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에 비해 ‘개’를 더 많이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아무래도 중학생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에 비해 비속어의 부정적인 특성을 더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0년 중학생과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성장해서 2015년 ‘개’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했다면 임현열(2015)이 보고한 차이를 보였을 것이다. 신조어 ‘개’가 ‘캐’로부터 유래했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에 차이가 있다는 음운변이설의 해석은 무리한 해석으로 보인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신조어 ‘개’와 연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캡’과 ‘캐’의 사용실태를 소셜 빅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학계의 가설을 검토하였다. ‘캡’이 신조어 ‘개’의 원형이라는 가설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캡’이 수식어인 강조부사만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명사형 술어로 주로 사용된다는 점이고, 둘째는 의미적으로 비속어가 지니는 부정적인 센스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조어 ‘개’가 ‘캡’으로부터 파생되었다면, ‘캡’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명사형 술어로서 그리고 부정적인 센스 없이 사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조어 ‘개’는 접두어 ‘개’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여전히 비속어가 가지는 부정적인 센스를 전달한다.

‘캐’가 신조어 ‘개’의 전신이라는 가설 또한 두 어휘의 사용실태와 부합하지 않는다. ‘캐’가 ‘캡’으로부터 파생되었고 접두어 ‘개’와 무관한 어휘라면 ‘캐’가 접두어 ‘개’를 대체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화자들은 ‘캐’를 접두어 ‘개’ 대신에 종종 사용한다. 또한, 신조어 ‘개’가 ‘캐’로부터 파생되었다면, 신조어 ‘개’가 출현한 시점인 2010년도에 ‘캐’의 빈도수가 정점에 있다 신조어 ‘개’와의 경쟁에서 밀려 매년 서서히 감소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과 달리, 화자들이 ‘캐’를 ‘개’보다 많이 사용한 해는 전무하다. ‘캐’가 접두어 ‘개’를 대신해 사용되는 현상과 화자들의 ‘캐, 개’ 사용패턴은 신조어 ‘개’와 ‘캐’가 접두어 ‘개’로부터 파생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해석된다.

참고문헌

- 강희숙. (2012). 통신 언어에 나타난 역문법화 현상 고찰 - 접두사 '개'의 용법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61, 61-87.
- 김정선, 이필영, 김태경, 이삼형, 장경희, 전은진. (2011). 청소년 입말에 나타난 비속어, 유행어, 은어 사용 실태. *한국언어문학*, 77, 285-324.
- 김정선, 이필영, 김태경, 이삼형, 장경희, 전은진. (2013). 청소년 입말에 나타난 비속어와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실태 조사. *국어교육*, 140, 153-181.
- 김태경, 장경희, 김정선, 이삼형, 이필영, 전은진. (2012). 청소년의 비속어, 욕설, 은어, 유행어 사용 실태와 언어 의식 연구. *국제어문*, 54, 43-93.
- 노명희. (2013). 국어의 탈문법화 현상과 단어화. *국어학*, 67, 107-143.
- 손평호. (2014). '개-'의 생산성과 범주 설정의 문제 - 신어 '개+X' 유형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39, 85-116.
- 오효정, 김중혁. (2021). 트위터에 나타난 접두어 '개-'의 사용 양상. *언어학*, 29(1), 1-23.
- 임현열. (2015). 신조어에서 나타나는 어형 변화의 한 양상 - 정도부사 '캡(< Captain) > 캐 > 개'의 변화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63, 111-136.
- 장경현. (2019). 신조어 접사의 형태·의미 특성 연구.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20(1), 311-336.
- 장부리. (2012). *한중 통신언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비교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은진, 이삼형, 김정선, 김태경, 이필영, 장경희. (2011). 문자 언어에 나타난 청소년 언어 실태 연구. *청람어문교육*, 43, 371-406.
- 정상준, 윤보현, 오효정. (2019). 언어 네트워크 기반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 및 매체별 특성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1), 181-207.
- 표준국어대사전*. (2020). 국립국어원. 온라인주소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홍달오. (2014). 접두사의 준부사화 경향에 대한 고찰 접두사 '개'를 중심으로. *언어*, 39(1), 231-249.
- Oh, H. J., Kim, C. H., & Jeon, J. G. (2020). Public sense of water fluoridation as reflected on Twitter 2009-2017. *Journal of Dental Research*, 99(1), 11-17.
- Online Etymology Dictionary. (2001). *damn(v.)*, Retrieved July 15, 2021, from <https://www.etymonline.com/word/damn>

오효정

5489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전북대학교 의료정보 융합연구소

전화: (063)270-3208

이메일: ohj@jbnu.ac.kr

김종혁

5489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전북대학교 의료정보 융합연구소

전화: (063)270-3209

이메일: chonghyuck@jbnu.ac.kr

Received on July 30, 2021

Revised version received on September 14, 2021

Accepted on September 30, 2021